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단기 외채, 1천 억 달러 돌파
- 美·中 경제전략 대화 개최 예정

경영 노트

- 세계 스타 CEO가 제시하는 2007년 성공 키워드

사회 트렌드

- 토피(TOFI: Thin on the Outside, Fat on the Inside)
- 트루시니스(Truthiness)

저널 브리프

- 중국의 자주적 시장창조 전략

洗心錄

- 자부심을 불어넣는 방법

□ 단기 외채, 1천 억 달러 돌파

- 지난 9월 말 현재 우리 나라의 단기 외채(1년 미만의 대외 채무)가 1,0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천 억 달러를 돌파함
 - 해외 저금리의 실익을 얻으려는 외화 대출을 위한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이 단기 외채 증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대외 지급 능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은 IMF 안정 기준(60%)에 비하여 다소 낮은 47.5%이지만 2005년 말 대비 13.3%p나 상승하여 그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현재의 외환보유액(9월 말 2,282억 달러)을 고려할 때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낮지만, 단기 외채 급증은 국내에 과잉 유동성을 발생시키고 원화 환율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美·中 간 경제전략 대화 개최 예정

- 미국과 중국은 14~15일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경제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임
 -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위안화의 대폭 절상, 투자 규제 및 불공정 정부 보조금 지급 철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철저한 이행 등을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상품의 구매 확대, 대미 투자 확대,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 인상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압력이 강화되면서 중국 위안화의 절상 압력은 원화 환율에 대한 절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기업은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대중국 수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증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세계 스타 CEO가 제시하는 2007년 성공 키워드

- 세계적인 CEO들이 내년도 사업 성공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함*
 - CEO들이 제시한 성공 키워드는 ‘단순함’, ‘도전’, ‘차별화’, ‘신뢰’ 등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체험에서 비롯된 깊은 뜻이 담긴 화두로 평가받음
 - 결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내실 다지기를 성공 키워드의 핵심 요소들로 제시함
-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단순 진리가 통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에게 2007년의 경영 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으며, 성장을 위한 투자와 내실 경영을 통한 수익성 확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함
 - 새로운 경영 방식의 도입보다는 글로벌 CEO들이 제시한 성공 키워드처럼 결국 철저하게 기본기를 강조하는 방향이 유효할 수 있음

< 주요 CEO들의 2007년 성공 키워드 >

CEO	키워드	내용
세르게이 브린 (구글)	단순함 (simplicity)	다양한 IT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단순화시키는 기술이 사업의 성공 요소
채드 헐리 (유튜브)	피드백 (feedback)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외부의 피드백을 수용해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그룹)	긍정적인 마인드 (positive mind)	문제점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
리차드 브랜드 (버진그룹)	‘노’라고 말하라 (learn how to say no)	보스라면 '예스(Yes)맨'이 되어선 곤란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노(No)'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훌륭한 경영자
마이클 델 (델컴퓨터)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	전세계 10억 인구가 컴퓨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50억 명에게 더 팔 수 있다고 생각
존 체임버스 (시스코)	기술 전도사 (evangelize technology)	신기술만 있다면 모든 사업 전략 달성이 가능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신뢰 (trust)	소비자들은 기업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며, 직원의 신뢰, 고객의 신뢰가 성공의 열쇠
크리스 드울프 (마이스페이스)	규범과 가치 (standard, value)	보편 타당한 규범과 가치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 CNN의 경영 전문지인 ‘비즈니스 2.0’은 세계의 최고경영자 50명의 2007년도 사업 성공을 위한 주요 핵심 개념을 소개(2006년 11월 28일)

□ 토피(TOFI: Thin on the Outside, Fat on the Inside)

- ‘토피’란 몸매는 날씬하지만 속은 뚱뚱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내장 비만인 사람을 일컫는 말임
 -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는 이런 토피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 인구의 40%나 됨
 - 겉으로는 날씬해도 심장, 간(肝), 췌장 등 몸 안의 여러 장기에 보이지 않는 지방이 많은 사람은 살은 찼지만 내장 지방이 적은 사람보다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함
 - 체내에 쌓인 내장 지방이 피부 아래에 쌓인 피하 지방보다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임
 - 토피의 원인은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폭식이나 과음으로 장기 주변에 지방이 쌓인 결과임
- WHO는 유럽 국가들이 비만 문제 때문에 국내총생산의 1%와 보건지출의 약 6%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 비만 인구는 전체의 31.8%로 지난 10여 년 동안 1.6배가 증가했고, 소아 비만의 경우는 최근 3년간 2배나 늘어남
 - 우리의 경우, 비만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비만대책위원회’ 구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식품 광고 및 음료수 자판기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트루시니스(Truthiness)

- ‘트루시니스’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신조어임
 - 웹스터(미국의 사전 출판사) 사이트를 통해 실시된 온라인 투표 결과,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단어는 ‘트루시니스’로서, 다른 단어(google, decider, war 등)에 비해 5배나 많은 지지를 얻음
- 미국 코미디언 스티븐 콜버트가 자신의 패러디 토크쇼에서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처음 사용함
 - 부시 대통령이 해리엇 마이어스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그의 가슴을 믿는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진실이 책에서 유래되지 않고 감정(gut)에 의존하고 있음’을 비난함

□ 중국의 자주적 기술창조 전략*

- (자주창신 전략 수립) 중국은 노동력과 자원에 의존했던 지금까지의 성장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주창신(自主創新)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 (기존 성장 시스템 탈피) 단순 노동력과 자원 투입에 의존한 기존 성장 시스템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기술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전환함
 - (R&D 투자 위주 전략 실시) 자주창신 전략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2% 이상,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 70% 이상 제고, 기술 대외 의존도 30% 이하 축소 등을 목표로 기술 자립형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정부의 투자 지원) 중국 정부는 상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증대,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기술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음
 - (상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기초 과학 연구가 중심이 아닌 중국 시장의 생산품을 개발하기 위한 분야에 투입됨
 -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5년 1.6%로 미국 2.6%, 일본 3.2%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R&D 투자 증가율은 지난 1년 간 17%로 미국, 일본 등의 4~5%보다 높은 수치임
 -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 800개(2006년 10월 말 현재)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R&D 센터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중국 업체와의 현지 기술 개발 과정을 통해 제휴 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
- (시사점) 중국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R&D 투자 증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12.1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자부심을 불어넣는 방법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카첸바흐(Jon R. Katzenbach)는 『왜 자부심이 돈보다 중요한가(Why Pride Matters More Than Money)』란 그의 저서에서 나 자신과 동료에게 자부심을 불어넣는 방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감정을 자극하는 목표를 세우라. 실현 불가능한 꿈은 비록 이룰 수는 없지만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누구도 美 해병대가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는 꿈이 해병대 전체에게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려는 동기를 심어주고 사기를 불돋아 준다.

둘째,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라. 비록 꿈이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라도 그들이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임무는 있다. 그런 조직일수록 현 위치에서의 임무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간단한 목표로 삼아 지키려고 노력한다. KFC의 ‘저렴한 치킨 식사’라는 목표는 그다지 거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목표와 조직의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해 자부심을 가진다.

셋째, 존중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넓혀라. 평생 일을 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이득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

넷째,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돼라. 언제나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진심 어린 헌신을 할 줄 알고, 조직이 이룬 성과에 대해 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느 누가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인격을 흠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며 자연스럽게 자부심도 상승한다.

다섯째,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유머 감각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자부심이 생기도록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나는, 과거 내가 상상한 바로 그 모습이다.

- 커트 보네거트 2세 (1922~) : 미국의 소설가